

문화실천의 공간으로서의 옷과 옷입기

김 광 역

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

I. 몸의 장식, 드러냄과 감춤, 그리고 문화

권력과 이념과 역사와 몸
집체적 몸과 개인의 몸
생산을 위한 몸과 소비를 위한 몸
상상의 실천을 위한 변신
실용적 수단과 상징체계

II. 문화체계로서의 옷

1. 차별화(Distinction/ Differentiation)의 코드

성/연령(세대)/계급/지위/정체성
옷의 디자인/ 색깔/ 장식/ 천/
시간과 공간의 범주화
일상과 탈일상(축제)
직장(작업)과 여가
의례/성과 속/오염과 순수

2. 문화의 조직원리를 매개하는 것

지향하는 관념의 표현
민속의상의 디자인, 색깔, 무늬 (동물/식물과 디자인)
사회의 조직원리
세계의 상징적 분류
오방과 상징분류

3. 문화적 범주와 문화원리를 코드화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을 매개가 된다.

연행적 효과: 통과의례에서 그 과정(정체성/지위)의 변화
권력과 권위의 표현 기제로서의 옷
군국주의(독일장교/ 근대 군대의 옷/ 훈장 등)

Ⅲ. 옷입기와 문화실천

1. 권력과 이념의 실천기제

지배와 저항의 옷

이념적 저항과 시대적 상황(취향)의 표현

식민체제와 제국주의 그리고 피지배 사회의 관계

이념적 저항의 강조와 상징을 위한 복장

정체성/상상과 이미지의 경합

현대성 담론과 민족 정체성 담론에서의 옷의 역할

국가권력과 사회적 관계

육체와 이념의 지배와 규율: 복장에 관한 국가적 이상형

퇴폐와 건전한 옷차림의 기준의 의미

청바지와 정통한복 및 민중민족주의와 개량한복

정치사회적 집단화의 수단

동일한 옷매무새와 정치적 공동체: 문화의 정치화

2. 종교와 상징자원의 조직화와 옷

성스러움과 속된 것

주술과 신비

3. 옷의 정치경제학

소비와 권력의 생산

World System

Fashion

Modernity

Commoditization

4. 소비의 생산자와 주체